

광주학생들, 미국서 한국의 멋 알린다

23일까지 '光탈페 탐방 프로그램' K-POP 버스킹 프로젝트 진행

광주학생들이 미국에서 한국문화를 알린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미국 보스턴과 뉴욕에서 '光탈페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의 하나로, 학생들의 글로벌 예술 역량을 키우고 진로 탐색을 도울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에는 지난 10월 12일 개최된 2024 '光탈페(광주학생탈테스티벌)' 경연과 별도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학생 16명이 참여한다.

또 이정선 교육감이 학생들을 직접 인솔해 미국 내 주요 대학 및 예술 공간 등을 소개한다.

학생들은 보스턴, 뉴욕 소재 주요 대학 및 예술고등학교 등을 탐방하고, 뉴욕한국문화원 방문 및 문화예술 교류 협의회를 갖는다. 또 전문 댄스 클래스(Broadway Dance Center 및 Mark Morris 브루클린) 프로그램, 아시아인 최초로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 주역으로 발탁된 배우와의 만남 등을 체험할 예정이다.

특히 K-Culture를 알리기 위해 K-POP으로 이뤄진 버스킹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이 밖에 전문 공연장 백스테이지 투어(링컨 센



광주시교육청이 진행하는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한국문화 알리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터, 카네기홀), 유학생과 교류 및 진로멘토링,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관람, 5·18민주화운동 세계화 플래시몹 등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광주예술중학교 3학년)은 "미국 문화예술 현장에서 한국의 문화와 5·18 정신을 전세계에 알리겠다"며 "이번 탐방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글로벌 리더십 캠프는 5·18 세계화와 한국문화를 세계에 널리 홍보하는 의미

있는 기회는 물론 광주학생들이 세계민주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광주가 K-POP, 실용예술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 글로벌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세계민주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학생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보리 활용 저탄소 커피로 친환경 실천

동강대 BI센터 맞춤형 일자리사업 참여 '효양' 콜드브루 'Drif' 개발

'커피를 마시면 인쇄종이 500장, 플라스틱 일회용 컵 16개, 종이컵 30개를 아낄 수 있다?'

동강대학교 창업보육(BI)센터가 지역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 북구, 광주시와 함께 진행하는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특화 사업'에 참여 중인 커피 컴퍼니 효양(대표 최효규).

효양은 세상에 없던, 세상에 이로운 저탄소 커피 '드리프(Drif: Drink Your Belief)'로 레드오션인 커피 시장에 과감히 뛰어 들었다.

최 대표는 "기후 위기로 커피 시장도 친환경 열풍이다. 보리가 탄소흡수 작물인데 이를 활용한 커피 음료 자체가 친환경성을 가진 상품이 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년 여의 연구개발 끝에 저탄소 커피를 개발했다. '드리프'는 고품질 청매에서 고급한 보리와 원두를 융합 추출해 탄소 배출량과 카페인 함량을 줄인 콜드브루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콜드브루와 비교해 1병(1L)당 1.5kg의 탄소저감 효과가 있다.

'드리프'의 첫 론칭은 기대 이상의 호응으로 성공을 예감했다. 이후 '드리프' 서포터들이 남긴 후기를 꼼꼼히 분석해 기초식품인 커피에 대한 다양한 라인업의 의견을 내놓았다.

최 대표가 포화상태인 커피를 창업 아이템으로 잡은 건 커피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었다.

그는 광주바리스타 핸드드립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사)한국커피협회 티 마스터 자격증, KCMA 커피 마신 관리 과정, (사)한국커피협



최효규 대표



효양 저탄소 커피 '드리프'

회 커피 지도사 2급과 바리스타 1급, Specialty Coffee Association에서 Roasting Foundation 교육 등 커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로스터이자 바리스타라는 자부심이 있다.

또 창업 실무 경험도 풍부하다. 호남대학교 창업대학원 프랜차이즈학과에 재학 중이며 커피컴퍼니 '효양'과 'TPT roasters'를 운영하고 커피협동조합도 여러 곳에 참여했다.

최 대표는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위해 지역 기업과 단독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생두와 부재료 구매 ▲로스팅기계 제작 ▲마케팅 ▲제품 R&D 지원 ▲시제품 시장분석 ▲패키지디자인 ▲제품이미지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최 대표는 "지역의 스몰 브랜드, 즉 1인 창업자들은 마케팅이나 기획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다. 때문에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여러 기업과 손을 잡고 로컬 브랜드를 위한 마케팅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던 중 동강대 BI센터의 지원 사업을 알게 됐고 특히 사업 내 프로그램이 '생활혁신 ENJOY Program in 광주'라 밝혔다. 성공 창업을 위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GIST 설립 31주년 "함께 새 역사 써 내려가자"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지난 15일 GIST 오룡관 다목적홀에서 설립 3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김윤섭 GIST 기술경영아카데미(GTMBA) 7대 총동문회장과 김해명 GIST 발전재단 이사장 등 학생·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기철 총장은 기념사에서 "오늘 우리는 설립 제31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의 결속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함께 미래를 열어 가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며 "서로 존중하고 하나가 될 때 진정한 하모니업(harmony-up)을 이루고 재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설립기념식을 기점으로 우리 모두가 '원팀 지스트(One Team, GIST)'의 의미를 되새기며, GIST라는 이름 아래 소중한 뜻을 모아 함께

새 역사를 써 내려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GIST 대외협력처는 내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대학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외부 기금 조달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나누면 더 커집니다(나-더-커) 캠페인'을 선언했다.

정용화 대외부총장은 "GIST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학교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나-더-커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여러분의 작은 기부가 모이면 학교의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 우리가 먼저 쉽게, 적은 금액으로 기부를 시작하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GIST는 1993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총 8348명(박사 1945명, 석사 5086명, 학사 1317명)에 달하는 인재를 배출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송원대 철도대학 학생들이 '기업분석경진대회' 대상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 철도대학 학생들이 최근 호남대 상하관에서 열린 '2024 기업분석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18일 송원대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 송원대 1개 팀, 호남대 8개 팀이 출전해 송원대 '대한의 수레' 팀이 대상(고용노동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이 대회는 고용노동부 주관, 호남대학교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주최로 열렸다.

'대한의 수레' 팀은 철도안전시스템학과 송명기 씨의 리더를 맡았고 철도안전전공제학과 임현씨가 발표를 했다. 팀원으로 철도안전시스템학과 심지성·김진홍·임영광씨 등 총 5명이 참가해 '대아TI 기업분석'을 주제로 철도신호에 관한 내용을 발표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송원대 철도안전시스템학과 김양수 학과장은 "호남 유일 철도특성화 대학을 기반으로 우수학생 양성 및 철도 공기업 취업까지 연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전남대-광주시교육청, '이글아이' 사업 공동 추진

학교 사진·영상 데이터 수집

전남대학교와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사진과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글아이'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전남대 지리학과와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광주 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25년 1월까지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드론 촬영을 통해 광주 시내 학교 시설의 영상·사진 데이터를 모으기로 했다.

지리학과 학생들은 공간분석 능력 등 전공지식을 활용해 직접 드론 조종, 촬영, 영상지도 제작, 동영상 편집과 활용과정에 참여한다. 시교육청은 확보한 영상·사진 자료를 학교와 교육기관의 홍보 영상물 제작이나 역사기록물 보관, 시설물 유지에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기관은 시교육청을 포함한 4개 기관과 8개 초·중·고등학교의 항공 영상·사진 촬영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사업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재원으로 진행된다.

정영미 전남대 교육협력관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대학-지역사회-교육청 간 협력체제가 구축되



전남대 지리학과와 학생들이 15일 광주동초등학교에서 드론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대 제공>

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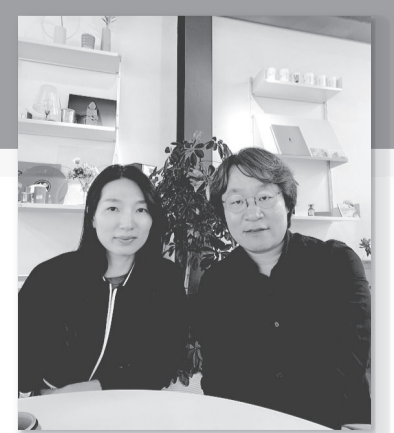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